

강지원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장 위촉



행정안전부는 9일 국민추천 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강지원(63)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심사위원은 모두 17명이며 이 중 13명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이다.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위원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포상심사 기준, 방침 등을 논의했다.

#### 광주 동구, 정신보건 복지부장관상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사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0 정신보건사업 우수 프로그램'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지난 1995년 정신 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수용 중 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에서 탈피,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재활과 사회복귀 등 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편견을 바꾸도록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수현기자 yang@

#### 한림문화상에 나주출신 김수봉씨



지역 문화발전과 한국문단에 새로운 창작열을 불어 넣는 역량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고 있는 한림문화상 을 해 수상자로 수필가 김수봉(74·사진)씨가 선정됐다.

나주 출생인 김씨는 자연과 인생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예리하고 치밀한 탐색을 통해 간결한 수필을 쓰는 작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동안 '전라도 말씨로', '소쇄원 바람소리' 등 수필집을 발간했다. 1984년 '월간문화'에 수필로 등단했으며 광주문화상, 소월문화상을 수상했으며 광주문화회장, 영호남수필문화회장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홍기월 동구의장 '텃밭포럼' 회장 취임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장이 9일 오전 YMCA 무진관에서 열린 '생활 정치 광주 동구 텃밭포럼' 결성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 집 앞의 텃밭을 일구는 마음으로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생활 속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 떠벌정치를 일구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정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여대 김미소, 국제 네일아트 1위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2학년 김미소양이 미용 꿈나무 300여명이 참석한 '제6회 I.M.A. KOREA 국제뷰티페스티벌'에서 네일아트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한·일 미용 경영자 모임인 I.M.A. KOREA 가 주최하는 국제뷰티페스티벌은 미용업체의 CEO 및 전문가들이 심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취업과 연계시키는 대회이다.

## "가슴으로 낳은 사랑 실천 행복해요"

### 광주·전남 입양가족 모임

#### '입양의 날' 총리·장관표창 경사

입양의 필요성을 앞장 서 홍보해온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대표 엄진경) 회원들이 겹겹 사를 맞았다. 오는 11일 '제6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고애란(16)양 등 모두 5명의 회원이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을 받는다.

입양홍보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입양아 중에서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고양은 생후 15개월 입양돼 지금은 어엿한 소녀가 됐다. TV를 통해 입양 사실을 밝히면서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소녀다.

아버지인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부회장과 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 엄진경씨의 영향이 커졌다. 지금은 홍보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광주시 동구 학동 향기로운 교회 이점준(59) 목사는 1998년부터 영아일시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난 2001년 당시 4살이던 막내 샘(여·14) 이를 만났다. 그 뒤부터는 목회활동과 더불어 입양홍보활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이 목사의 노력으로 8개 정이 입양했다.

이들은 매달 '수다방'이라는 입양 어머니 모임과, 두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입양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입양 홍보활동에서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 입양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



이 밖에도 두 아이를 입양하고 영아일시보호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박은희(여·38)씨,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며 입양운동 활동화에 앞장선 현영자(여·44)씨, 출트아동복지회의 위탁자가 정으로 지난 8년동안 100여명의 아이들을 돌본 양희자(여·43)씨가 광주시장 표창을 받는다.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998년 공개입양을 통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입양부모 10쌍이 모여 시작한 단체다. 이후 2000년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은 50여 가정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들 중 일부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직접 강사로 활동하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엄진경 대표는 "몇몇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마저도 색안경을 끼고 입양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아직도 많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1위

#### 안철수 교수

젊은 직장인들은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로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를 가장 많이 꼽았다.



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도서출판 티움이 20~30대 직장인 7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 대한 조언과 격려, 질책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17.4%가 안 교수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9.5%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선택했으며, TV 예능프로그램에 멘토로 출연 중인 가수 김태원 씨를 꼽은 응답자도 4.7%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작가 한비야씨(4.5%),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4.4%), 노무현 전 대통령(2.5%) 등이 이상적인 멘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42.2%는 현재 멘토가 있다고 밝혔으며 친구·직장동료(26.4%), 부모님(22.35), 선배·직장상사(18.9%), 배우자(12.8%) 등 멘토로 삼고 있다고 응답했다. 멘토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인간관계'(39.9%), '이직'(35.1%), '진로'(34.5%), '직장생활'(27.0%) 등의 답변이 나왔다.

## "5·18의 기억, 참된 민주화 도움되길"

### 5월 어머니상 수상한 슈나이스 목사

"광주에 대한 기억은 평화롭고 비폭력적이며 신뢰로 가득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9일 광주시 동구 명동동 (사)5월 어머니의 집을 찾은 '제5회 5월 어머니상' 수상자 독일인 바울 슈나이스(Paul Schneiss·77·사진) 목사는 5·18 민중 항쟁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1980년 5월 당시 독일 동아시아선교회 일본파송 선교동역자로 활동해온 그는 서울에 거주하던 아내 기요코 여사를 통해 5·18에 대한 조언과 격려, 질책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17.4%가 안 교수라고 답했다.

한편, '(사)5·18 어머니회'는 지난 20일 바울 슈나이스 목사를 포함한 강광파(여·68·경기도 일산)씨·김은숙(여·52)씨 등 3명을 올해의 5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한 뒤 8일 시상식을 가졌다.

5월 어머니상 수상한 슈나이스 목사

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는 "광주의 5·18은 대동정신이 빛난 새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5·18을 전후해 광주는 아내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의 기억이 통일을 위한 에너지와 진정한 민주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면서 "통일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 이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5·18 어머니회'는 지난 20일 바울 슈나이스 목사를 포함한 강광파(여·68·경기도 일산)씨·김은숙(여·52)씨 등 3명을 올해의 5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한 뒤 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철도 가족, 송정역서 어버이날 색소폰 공연

철도 가족들로 구성된 '글로리 색소폰 연주회'가 8일 광주 송정역 맞이방(대합실)에서 고객들을 위해 색소폰 연주회를 열었다. 글로리 색소폰 연주회는 박태수 화순역 부역장 등 철도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다. 송정역은 문화가 흐르는 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 연주회를 마련했다.

글로리 색소폰 동호회는 '아버지 은혜'를 들려주고, 대중가요를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송정역은 커피, 녹차 등 음료를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김홍식 광주 송정역은 "송정역을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 스테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염충열·김선옥씨 장남 철현(을지병원 정형외과 의사)군 김재록(주식회사 삼진산업 대표이사)·채순옥씨 장녀 채인양=15일(일) 낮 12시 30분 신양파크호텔 062-228-8000.

▲이태경(시인·송일고 교사)·김태님씨 차남 다니엘군 박민호(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이명자씨 차녀 보람양=14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흘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진준수·김옥순씨 장남 형대군 정감섭·이수진씨 셋째 승희양=14일(토) 낮 12시 가톨릭대학교 평생 교육원 성당.

▲염동철(은승어린이집 이사장)·김경순씨 장남 친구군 정남홍·김문심씨 차녀 지인양=14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 프라자 광주호텔 4

### (그랜드볼룸)

▲이계철·정혜선씨 장남 삼호군 주장안·김영희씨 장녀 윤경양=14일(토) 오전 11시 50분 경복궁 웨딩 컨벤션 1층(경복궁홀).

▲김삼우(동광고속상무이사)·고경숙(나주초교사)씨 장남 인규(전남대병원 의사)군 김철남·김애인씨 차녀 오영양=15일(일) 낮 12시 무등크로프트 4층(컨vens홀).

▲박철현(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차중덕씨 장남 성근군 차재명·이정수씨 장녀 윤영양=15일(일) 오후 2시 한강유람선 여의도 선착장 알파크루즈호.

▲김용관(전 숭일중·고 교사)·진명희씨 장남 문식군 박경국·조경순씨 장녀 주연양=22일(일) 오후 2시 서강대학 교 이나시오 성당. 피로연 = 14일(토) 오후 6시 광주 삼복 웨딩홀 4층.

### 종친회

▲범최씨 대종회연합회(회장 최남용) 월례회=11일(수) 오후 6시 30분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062-263-3220, 010-3604-6865.

▲광덕고등학교 8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4일(토) 오후 6시 30분 상무지구 휴리데이인 호텔 062-610-7000.

▲광덕고 개교 30주년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15일(일) 오전 9시

### 도교 운동장 및 체육관

▲하남조선학교 39회 동창회(회장 김도열) 한마음 대회=15일(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 010-6772-4714.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0-277-0007.

062-515-4488.

▲신행님씨 별세 박휘운·영자·영숙·영희씨 모친상=발인 10일(화) 062-515-4488.

▲최효식씨 별세 김봉수(전 광주 일보 광고국장)씨 삼배 김현성(윤선 내과 원장)씨 빙부상=발인 10일(화) 010-250-4410.

▲장병철씨 별세 태사·철원·광

희·성희·숙희·태희·명숙씨 부친상

=발인 10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250-4488.

▲장병철씨 별세 김봉수(전 광주

대학장·광주향교 전의)씨 별세 태사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철원(우석

대 사무관)씨 부친상 김연길(군산 김내과 원장)씨 빙부상=발인 10일(화)

010-260-3-2572.

▲장